

모-자녀 성격조화유형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

The Goodness of Fit between Mother's and Child's Personality,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and Children's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박 영 애**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부교수 최 영 희***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박 인 전

Dept. of Child Dev. & Guidance, Hannam Univ.

Professor : Park, Young-Yae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The University of Suwon

Associate Prof. : Choi, Young-H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Yeungnam Univ.

Professor : Park, In-Jeon

<Abstract>

The patterns of mother-child personality match were investigated in the study. Further, the impact of goodness-of-fit between mother's and child's personality on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child's self-esteem, and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was explore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060 fifth graders and their mothers from four different cities(Seoul, Suwon, Daejeon, and Daegu). Six patterns of mother-child personality match were derived through cluster analysis and discriminant analysis. The most harmonious pattern in which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was positive and child's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were high appeared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with high "stability" and "superiority". The least harmonious pattern was shown for the mothers with low "responsibility" and "reflectiveness" and high "dominance" and "sociability", and the children with low "stability" and "superiority".

▲주요어(Key Words) : 성격조화유형(patterns in the goodness-of-fit between personalities), 양육행동(childrearing behavior), 자아존중감(self-esteem),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 이 논문은 1999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99-C00205).

** 주 저 자 : 박영애 (E-mail : yypark@hannam.ac.kr)

*** 교신저자 : 최영희 (E-mail : heechoi@suwon.ac.kr)

1. 서 론

부모와 자녀는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성격은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신체적 체계인 개인 내의 역동적 조직(Allport, 1973)으로서 성격으로 인해 개인은 비교적 일관된 행동패턴을 보이게 된다(Burger, 2000).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도 역시 부모의 성격에 기초하여 일관된 행동패턴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Belsky(1984)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의 개인적 요인인 성격 특성에 의해 가장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우울 성향이 있는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양육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으며(Bettes, 1988),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자주 경험하는 부모는 아동에게 주의를 덜 기울이고 덜 반응적이며 비밀관적인 양육 태도와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다(Belsky & Vondra, 1993). 또한 어머니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정서성이 높을수록 거부·권위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연·전춘애·한세영, 1996).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 자신이 지닌 성격특성으로 인해 상당부분 결정되지만 양육행동은 상호적인 것이므로 아동의 특성 역시 양육행동에 기여한다. 아동의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에 기여한다는 관점은 기질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같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까다로운 기질을 지닌 아동에게 대하는 방식과 순한 기질을 지닌 아동에게 대하는 방식이 달라(Thomas, Chess, & Birch, 1968), 순한 기질의 아동에게는 애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까다로운 아동에게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최영희, 1993).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아동의 특성으로 기질이 활발히 연구된 데 비해 아동의 성격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격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아동의 성격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달라진다고 보기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관점에서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성격을 종속변인으로 간주하고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횡단적으로 조사된 것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격은 어느 것이 독립변인이고 어느 것이 종속변인으로 작용하는가를 밝힐 수 없으므로 이들 연구 결과들을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격과의 단순 관계로 보아도 될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수용적이고 애정적 태도는 남아의 지배성, 사려성, 사회성이 높은 것과 상관이 있었으며(한중혜, 1980), 아동의 낮은 안정성과 사려성, 높은 충동성은 부모의 적극적 거부형 양육태도와(강영일, 1983), 아동의 낮은 안정성과 사회성은 부모의 부당한 양육과(박은미, 1993) 상관이 있었다. 즉, 안정성과 사려성, 사회성이 높은 아동의 부모는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부모 자신의 성격 특성과 아동의 성격 특성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상관이 있으나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부모의 성격과 아동의 성격의 상호작용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 자신의 성격, 아동의 성격, 그리고 부모와 아동의 성격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의 고유한 특성에 접근하는 통로이자 수단으로 부모와 자녀의 성격과 그 조화를 도입하였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의 성격의 표현이며 어떠한 행동도 그의 성격구조 또는 사람됨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한 선택의 기초가 된다. 부모자녀 관계도 일차적으로는, 그리고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각자가 그 관계로 도입하는 성격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각자의 성격 특성 자체보다는 쌍방의 성격간의 만남과 조화이다. 양육의 효과는 특정 성격과 행동의 결과라기보다는 쌍방이 지닌 조건과 특성들 간의 조화와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육은 상호적이고 쌍방적인 관계요소로서 아동, 부모, 환경이라고 하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 것이 Thomas와 Chess(1983)가 제안하고 Lerner, Lerner와 Zabski(1985)가 발전시킨 유기체와 환경간의 조화의 적합성(Goodness-of-Fit) 개념이다. 아동의 특성이 부모의 기대나 요구와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달라져,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한다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며, 못마땅해한다면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조화의 적합성 모델을 검증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주로 기질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 졌으나 개인과 상황의 조화가 기질특성에만 국한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아동의 인지양식이나 성격, 신체 움직임 정도 등 다양한 특성의 조화를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질 이외의 아동의 특성에서 조화모델을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조화의 적합성 모델이 연구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공감하는 이론적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가 종종 실패하였기 때문일 것(최영희, 1993)으로 보인다. 조화의 적합성 모델을 검증하려 했던 연구들은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요구와의 일치 또는 조화 정도보다 아동의 특성 자체가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개인과 상황의 조화 정도의 영향력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이는 부모가 아동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며 만족하는 바는 부모들 간 차이가 거의 없이 아동의 순한 기질에 대해서는 만족 정도가 높고 까다로운 기질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 조화 정도가 곧 아동의 기질 특성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성격에 만족하는 조화정도와는 다르게 부모와 자녀의 성격이 조화되는 유형을 발견하고 그 조화유형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이 다른가를 알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Clark, Kochanska, 그리고 Ready(2000)의 연구에서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는 부정적 정

서성이 높은 영아에게 권력행사를 높은 정도로 사용하였고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는 영아의 특성이 어떠한 권력행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높은 외향성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만나는 경우에 조화롭지 못한 유형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부를 대상으로 각자의 성격을 조사하고 관계 만족에 대해 면접하여 분석한 결과 신경증 경향이 부부관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으며, 부부 모두가 부정적 정서성을 보이지 않을 때 관계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obins, Caspi, & Moffitt, 2000). 말하자면 높은 관계 만족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부의 성격조화유형은 부부 모두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유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성격조화유형의 관점에서 어머니의 성격과 자녀의 성격이 조화되는 유형을 발견하고, 그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자녀의 성격조화유형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 요소 중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을 택한 이유는 이 두 요소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더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 발달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Dunn & Brown, 1994)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기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Harter, 1985; Rosenberg, 1979), 이 시기 아동들의 자신에 대한 견해는 성격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미 형성된 자아상은 전 생애를 통한 성공과 행복, 실패와 불행이라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아동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독특한 사고, 감정, 행동을 포함한 아동의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동기의 이러한 인성형성은 긍정적 자아실현과 효율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등 일생동안 인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Coopersmith, 1967; Harter, 1982; Wylie, 1979)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자아존중감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상태를 안정되게 유지하도록 해 주고, 삶에 동기를 갖게 해 주며,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여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때로 치밀어 오르는 충동적인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게 해 주며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움직임은 보이는 능력인 정서지능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요소이다. 정서지능은 적응과 성취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신적 능력이자 기술이며(Mayer, Caruso, & Salovey, 2000) 종류가 무엇이든 주어진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는 개인의 특징(Carroll, 1993)이다.

부모들은 우리 가정에 맞는, 혹은 자신의 자녀에게 맞는, 혹은 부모 자신에게 맞는 양육행동이나 훈육기술 등을 알고 싶어

하고 또 원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나 판단, 느낌이나 추구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더 없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자녀 성격조화유형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부모-자녀 성격조화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아울러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은 어떠한지를 각각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모-자녀의 성격조화유형은 어떻게 구분되어지며, 각 유형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2> 모-자녀의 성격조화유형에 따라 어머니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3> 모-자녀의 성격조화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4> 모-자녀의 성격조화유형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수원, 대전, 대구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5학년 아동 1104명(서울 216, 수원 257, 대전 285, 대구 346명)과 그들의 어머니들로,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된 자료 중 1060명 아동과 그 어머니들의 성격특성 및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어머니 양육행동에 관련된 자료들이 본 연구를 위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 아동은 남아가 527명(53.6%)이고 여아가 457명(46.4%)이었다. 연구 대상 어머니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 58.4%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을 포함한 대졸 이상은 33%이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50-200만원 미만인 3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50만원 미만(27.2%), 200-250만원 미만(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총 5가지로서, 아동의 성격검사, 어머니의 성격검사,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정서지능, 그리고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가 사용되었다.

1) 아동의 성격특성

아동의 성격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상로·변창진·진위교(1969)가 엮고 중앙적성연구소에서 제작한 초등학교 고학년용 성격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의 성격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제작되고 표준화된 검사로서 총 10개 요인, 2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기술척도와 임상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의 신뢰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타당성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성격 특성들을 측정할 기술척도 부분이 분석되었다.

기술척도는 7개의 성격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하위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안정성: 정서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정의 안정 및 평온, 확고한 자신과 낙관, 조용하고 침착하며 태연한 특성 등을 포함한다.
- ② 활동성: 일상생활에서 행동이 민첩하고 정력적, 활동적이며, 부지런함을 보이는 성격 특성을 의미한다.
- ③ 사회성: 대인관계에서의 사교성, 협동성, 대인 순응성 등을 의미한다.
- ④ 남향성: 남성적인 성격특성으로 정력, 운동, 노동이 필요한 활동적인 일을 즐기는 특성을 말한다.
- ⑤ 책임성: 인내성, 주의집중력, 자발성, 자기통제력, 의지력 등을 지니고서, 맡은 일을 끈기있게 완수하는 성격특성을 일컫는다.
- ⑥ 사려성: 행동보다 사색에 시간을 보내며 사태의 원인 규명, 반박, 논증 등을 즐기는 논리적, 이지적 특성을 일컫는다.
- ⑦ 우월성: 우월감-열등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우월감이 높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며 자기 과시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 성격특성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각 영역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Spearman-Brown 공식을 적용한 기우 반분(Split-half method)신뢰도 계수가 .72에서 .89였으며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 어머니의 성격특성

어머니의 성격검사를 위해서 이상로·변창진·진위교(1969)가 엮고 중앙적성연구소에서 제작한 성격진단검사(성인용)를 사용하였다. 총 350 문항으로 구성된 성인용 성격검사는 9개의 기술척도와 5개의 임상척도 및 1개의 타당도 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술척도 부분을 분석하였다. 기술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안정성: 정서적 안정성의 정도로, 정신적 균형의 유지, 감정의 안정 및 평온, 확고한 자신과 낙관을 의미한다.
- ② 지배성: 인간관계에서 지도력과 주도력, 설득력, 진취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③ 사회성: 대인관계, 사회관계에서의 사교성, 협동성, 대인순응성, 관용성 등을 포함한다.
- ④ 책임성: 책임을 신중히 생각하고 맡은 일을 끈기 있게 완수하며 자발성이 강한 특성을 말한다.

⑤ 사려성: 심사숙고하고 반성적이고 공상적, 이상적인 경향을 보이며 논증과 추리 등을 즐기는 이지적 경향을 의미한다.

⑥ 동조성: 순응성, 대응성, 동화성, 인습성 등으로 전통에서의 좋은 점을 따르는 성격경향을 의미한다.

⑦ 남향성: 남성적인 성격특성으로, 정력, 운동, 노동이 필요한 활동적인 일을 즐기는 특성을 의미한다.

⑧ 충동성: 사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며 즉흥적이고 자유방적인 특성을 말한다.

⑨ 우월성: 우월감-열등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든든한 자신감을 가지며 자기 과시적인 행동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3)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Schaefer의 어머니 양육행동 모형을 토대로 박영애(1995)가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주요 차원들에 걸친 다양한 내용의 문항들에 대해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평소의 행동을 근거로 하여 그것이 문항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아주 비슷하다'(4점), '대체로 비슷하다'(3점), '별로 비슷하지 않다'(2점), 그리고 '아주 다르다'(1점)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채점의 방향은 기존의 척도들과 달리 온정·수용, 거부·제재, 그리고 허용·방임의 세 요인들을 두 차원의 양육 개념들이 아닌 개별적 차원으로 간주하여 각 차원마다 그 강도가 높아지는데 따라 높은 점수를 주었다. 따라서 높은 점수는 양육행동 각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행동의 요인구성과 개념은 다음과 같다.

① 온정·수용(40 문항): 아동에 대한 애정 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과 참여 및 경험의 공유, 대화와 설명, 아동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와 지원, 지도의 합리성 그리고 자율성 및 독립성 장려 등의 부모 행동을 포함한다.

② 거부·제재(28 문항): 아동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 표현, 적대적, 감정적 훈육,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그리고 침해적 개입 등의 행동들을 포함한다.

③ 허용·방임(12 문항):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 주는 익애·굴복형 허용과 무책임·무관심형 방임 등의 행동들이 포함된다.

각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는 온정·수용 .94, 거부·제재 .88, 허용·방임 .65이었다.

4)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Harter(1985)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SPPC)을 번안한 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문항분석과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한 박영애(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일부 문항내용의 표현을

약간 수정하였다.

원 척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의 자존감 하위영역에 대한 자기 지각과 하나의 총체적 자아가치 평가를 위한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6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자아존중감의 5가지 하위영역인 학업 능력, 운동 능력, 사회적 수용도, 신체적 용모, 행동·품행과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이들의 합이 아니라 별도의 개념으로서 위의 5가지 하위 영역들과 상관을 지니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체계는 4점 척도로서 각 문항마다 주어진 4개의 응답은 개인의 특징과 역량에 대한 긍정적 진술 2개와 부정적 진술 2개로 양분되어 있다. 즉 각 질문마다 원편과 오른편에 두 종류의 나에 대한 다른 설명이 나오며, 그 중에서 자기 자신과 비슷한 쪽의 설명을 먼저 선택한 후, 그 내용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나는 정말 그렇다”와 “나는 약간 그렇다”중에서 한 곳에 표시하면 된다.

답안의 배열 방식은 일정한 패턴이 없이 긍정적인 쪽과 부정적인 쪽이 지면의 왼쪽과 오른쪽에 무선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긍정성이 높은 답안에서부터 “나는 정말 그렇다”에 4점, “나는 약간 그렇다”에 3점, 부정적인 답안 중 “나는 약간 그렇다”에 2점, 그리고 “나는 정말 그렇다”에 1점이 주어진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5) 아동의 정서지능

아동의 정서지능 척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정서지능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곽윤정, 1997; 문용린, 1997; 문용린, 곽윤정, 이강주, 1999; Salovey & Sluyter, 1997)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팀이 제작하였다. 정서지능 척도의 문항은 총 80개로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자기 정서조절, 타인 정서조절, 자신의 정서인식, 타인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활용 등의 하위개념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문항들은 5명의 아동학 및 관련 분야의 교수들과 전문가 및 5명의 석·박사과정 전공자들에 의해 내용 타당도와 문장 표현방식 등을 검토받고 수정·보완된 후 예비조사에 사용되었으며, 문항양호도 검토(응답분포, 문항변별도) 및 요인분석과 신뢰도(내적 합치도)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63개 문항이 선정되어 본조사에 사용되었다.

정서지능 척도의 점수체계는 3점 척도로서 아동 자신이 평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과 행동을 나타내는 문항내용에 대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그렇다’(3점), ‘가끔 그렇다’(2점), ‘그렇지 않다’(1점)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 자료의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 구성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4 요인구조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4개 요인에 모두 5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4개 요인의 총설명 변량은 약 28%로서 문용린 등(1999)의 연구에서 밝혀진 5개 요인 즉 정서 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등의 설

명변량인 36%에 비하면 다소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6 요인구조인 경우 34%, 5 요인구조인 경우 31%로 나타나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었다.

정서지능의 구성 요인은 제 1 요인이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 활용(이후는 ‘자기조절 및 활용’으로 약칭함)’(20문항), 제 2 요인이 ‘정서인식’(15문항), 제 3 요인이 ‘타인 정서조절 및 자기 정서표현(이후는 ‘타인조절 및 표현’)(11문항), 그리고 제 4 요인이 ‘감정이입’(9문항)이다. 제 1 요인인 ‘자기조절 및 활용’ 요인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 하며, 아울러 부정적인 강한 감정이 생겼을 때 현재 진행중인 문제로부터 벗어나 기분을 전환하거나 새롭고 보다 중요한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내용의 문항들을 포함한다. 특히 정서활용은 사고, 추리, 문제해결, 창의적 과제를 해결할 때 정서를 적극적,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문제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제 2 요인인 ‘정서인식’ 요인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상태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전체 정서 지능의 토대가 된다. 즉 정서지능 하위영역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역은 정확하게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 수준과 관련된다. 제 3 요인인 ‘타인조절 및 표현’ 요인은 타인의 감정이나 기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고 바꾸어 주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표현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제 4 요인인 ‘감정이입’ 요인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재경험해 보는 것으로서 타인이 느낀 감정이나 기분을 마치 자신이 느낀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아동의 정서지능 척도 전체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 각 하위요인별 α 값은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이 .80, 정서인식이 .79, 자기정서표현 및 타인정서조절이 .77, 감정이입이 .69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은 예비조사(2000년 2월)와 본 조사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2000년 5월 8일에서 5월 23일까지 실시되었다. 담임 교사들이 검사지(아동 성격검사)와 질문지(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및 어머니 양육행동)를 배부하여 아동이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으며, 어머니 성격검사 도구는 아동들이 가정에 가져가서 어머니가 응답한 후 다시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전국 4개 도시(서울, 수원, 대전, 대구)를 대상으로 총 1113부가 배부되어 1104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불충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1060부의 설문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한글 SPSSWIN Program(version 10.0)을 이용하여 군집분석, 판별분석, 변량분석 등으로 통계처리 되었다.

III. 결과 및 해석

1. 모-자녀 성격조화유형의 구분 및 특징

1) 군집/판별분석을 통한 부모-자녀 성격조화유형의 구분

어머니와 자녀간 성격조화의 유형을 추출해 내기 위해 아동의 성격 요인과 어머니의 성격 요인들의 조합이 어떠한 군집으로 나뉘어 지는지를 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적용하였고, 분류된 각 군집의 성격이 서로 다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성격요인의 수를 몇 가지 결합요인들로 압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 성격요인은 아홉 가지에서 여섯 가지로 아동의 성격요인은 일곱 가지에서 여섯 가지로 압축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요인들 중에서 실제로 어머니의 남향성과 동조성 두 요인과 아동의 남향성은 하위척도로서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척도들이자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인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기능, 자아존중감 등과의 상관이 낮은 요인들인 관계로 분석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얻어진 성격의 요인들은 어머니 네 가지와 아동 다섯 가지로서, 어머니의 경우는 안정·우월·(-)충동성, 지배·사회성, 사려성, 책임성으로 그리고 자녀의 경우는 안정·우월성, 활동성, 책임성, 사려성 그리고 사회성으로 추출되었다. 여기에서 (-)충동성이란 충동성이 낮은 특성으로 안정·우월·(-)충동성은 안정성과 우월성이 높으면서 충동성은 낮은 성격 특성을 말한다.

적정한 군집 수를 발견하기 위해 군집분석의 대표적인 두 유형인 계보적 군집분석과 배반적 군집분석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두 결과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군집의 수가 7과 6이었고

그 두 가지를 연구자들이 내용 비교를 세밀하게 해 본 결과 여섯 개의 군집이 가장 적당하였다. 그에 따라 여섯 개의 군집 수를 지닌 군집분석 결과를 채택하고 그들에 대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수 6인 경우의 K-평균군집분석 결과 중에서 초기군집 중심에 관련된 자료는 생략하고, 반복 계산정보와 최종 군집 중심 관련 결과들을 소개하면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에 의하면 반복계산을 13회까지 실시한 결과 군집 중심의 더 이상의 거리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변경된 중심점에 의해 형성된 최대 거리는 .000이며, 내부 중심점간의 최소거리는 6.024임).

<표 2>에는 네 가지의 어머니 성격요인들과 다섯 가지 아동의 성격요인들이 각 군집(1~6)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수치들이 제시되어 있다. 각 군집별로 보면, 군집 1의 경우는 어머니의 안정·우월·(-)충동성이 낮고 지배·사회성이 낮으며 사려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안정·우월·(-)충동성이란 안정성과 우월성이 높고 충동성은 낮은 것을 의미하므로 군집 1은 어머니의 안정성과 우월성이 낮고 충동성이 높으며, 지배성과 사회성이 낮고 사려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군집 2는 아동의 책임성, 사회성, 안정·우월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군집 3은 아동의 안정·우월성, 책임성, 그리고 사회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군집 4는 어머니의 책임성, 사려성 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군집 5는 아동의 활동성과 사려성이 낮은 경향을 지니며, 군집6은 어머니의 지배·사회성과 책임성이 높은 경향을 지닌다.

<표 1> K-평균 군집분석(군집 수 6)의 반복계산정보

반복계산	군집중심의 변화량 ^a					
	1	2	3	4	5	6
1	3.043	3.481	3.055	3.333	3.545	3.011
2	.287	.425	.481	.273	.908	.284
3	9.525E-02	.114	.219	.127	.309	.269
4	.109	8.163E-02	.104	.133	.210	.163
5	9.253E-02	5.509E-02	.140	.144	.268	.136
6	.110	2.209E-02	.112	2.476E-02	.163	.112
7	3.357E-02	2.300E-02	.100	6.257E-02	.137	4.405E-02
8	.000	2.359E-02	5.627E-02	8.607E-02	7.361E-02	3.777E-02
9	2.206E-02	1.465E-02	2.593E-02	.000	3.584E-02	2.853E-02
10	2.804E-02	1.765E-02	2.135E-02	3.441E-02	.000	1.742E-02
11	2.484E-02	1.338E-02	4.512E-02	4.600E-02	2.566E-02	.000
12	.000	1.948E-02	.000	3.696E-02	.000	.000
13	.000	.000	.000	.000	.000	.000

a 거리변화가 없거나 작으므로 수렴이 만들어 졌다. 변경된 중심점에 의해 형성된 최대 거리는 .000이다. 현재 반복 계산 횟수는 13이다. 내부 중심점 간의 최소거리는 6.024이다.

<표 2> K-평균 군집분석의 최종군집 중심

	군 집					
	1	2	3	4	5	6
모)지배·사회성	-.879	.342	.080	-.377	-.252	1.052
모)안정·우월·(-)충동성	-1.015	.439	-.002	-.057	.054	.525
모)사려성	.741	-.040	-.091	-1.166	-.323	.496
아)사려성	.465	.811	-.286	.094	-.797	-.276
모)책임성	-.206	.409	-.097	-1.291	-.102	.696
아)책임성	.070	1.122	-1.201	.113	-.127	-.166
아)우월·안정성	-.191	.927	-1.338	.218	.090	.312
아)사회성	.210	.963	-1.196	.513	-.502	.202
아)활동성	1.154	.357	.012	.442	-1.285	.157

모) 어머니의 성격, 아) 아동의 성격

* 각 군집의 케이스 수: 군집1(106), 군집2(143), 군집3(115), 군집4(75), 군집5(107), 군집6(128); 유효(674), 결측(439)

<표 3> 분류 결과 및 분류 처리 요약

	군집번호	예측 소속집단						전체
		1	2	3	4	5	6	
빈도 (%)	1	97(91.5)	2(1.9)	2(1.9)	1(0.9)	2(1.9)	2(1.9)	106(100)
	2	0	139(97.2)	0	0	0	4(2.8)	143(100)
	3	1(0.9)	0	114(99.1)	0	0	0	115(100)
	4	2(2.7)	0	0	72(96.0)	0	1(1.3)	107(100)
	5	2(1.9)	1(0.9)	1(0.9)	1(0.9)	101(94.4)	1(0.9)	128(100)
	6	3(2.3)	1(0.8)	1(0.8)	1(0.8)	2(1.6)	120(93.8)	100.0(100)

군집 분류가 어느 정도로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는 군집 1부터 군집 6까지에 대한 분류 확률이 제시되어 있다. 군집 1은 전체 106사례 중 97개가 올바르게 소속되어 91.5%의 판별적중률을 보이고 있으며, 군집 2는 97.2%, 군집 3은 99.1%, 군집 4는 96%, 군집 5는 94.4% 그리고 군집 6은 93.8%의 적중률을 보여 전체 사례에 대해 95.4%의 판별 적중률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격조화유형별 집단의 특징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군집별로,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아동 간 성격조화 유형에 따라 집단의 특징을 <표 2>를 기초로 하여 제시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모-자녀 성격조화유형별에 따른 각 군집의 특징

군집1	어머니	안정·우월성이 낮고 충동성이 높으며 지배·사회성이 낮고 사려성이 높은 편	아동	책임성, 안정·우월성이 낮은 편이며 사려성은 비교적 높음
	어머니와 아동 모두 사려성만 다소 높은 편			
군집2	어머니	대부분의 성격특성이 높은 편이며 특히 안정·우월성이 가장 높음.	아동	대부분의 성격특성이 높은 편이고 특히 안정·우월성이 높고 책임성이 매우 높음.
	어머니와 아동 모두 안정·우월성이 높음			
군집3	어머니	책임성과 사려성은 낮고 지배·사회성이 높은 경향을 보임	아동	모든 성격 특성들이 낮으며 특히 안정·우월성이 가장 낮은 편임
	어머니는 책임성·사려성은 낮으며 지배성·사회성은 높은 경향이, 아동은 안정·우월성이 특히 낮은 편			
군집4	어머니	대부분의 성격특성이 낮은 편이고 특히 사려성과 책임성이 낮음	아동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은 편임
	어머니는 사려성과 책임성이 낮은 편이고, 아동은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은 편			
군집5	어머니	대부분의 성격특성이 낮은 편이고 특히 사려성과 지배·사회성이 낮음	아동	활동성과 사려성이 낮음
	어머니와 아동 모두 사려성과 사회성이 낮은 편			
군집6	어머니	대부분의 성격특성이 비교적 높으면서 특히 지배·사회성이 높음	아동	대부분의 성격특성이 낮은 편이며 사려성과 책임성이 낮음
	어머니는 지배성과 사회성이 매우 높으며, 아동은 사려성과 책임성이 낮음			

2. 모-자녀 성격조화유형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모-자녀간 성격조화유형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표 5> 모-자녀 성격조화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군집	양육 행동			양육 행동			양육 행동				
	M(SD)	F값	사후 검증	M(SD)	F값	사후 검증	M(SD)	F값	사후 검증		
1	3.26(.46)	21.0***	a	2.14(.45)	19.0***	b	2.02(.37)	4.6***	b		
2	3.52(.37)			1.91(.35)			c			2.01(.39)	b
3	3.07(.49)			2.40(.44)			a			2.22(.48)	a
4	3.36(.47)			2.10(.39)						2.14(.38)	
5	3.01(.46)			1.98(.43)			b			2.06(.39)	
6	3.24(.45)			2.09(.47)						2.04(.42)	

***p < .001
a, b; Scheffe 사후검증 집단 차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집2(어머니와 아동 모두 안정성과 우월성이 매우 높음)의 어머니가 온정·수용이 높고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은 낮아 가장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안정성과 자신감이 높고 어머니 역시 안정성과 자신감이 높은 경우에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군집3(어머니는 책임성과 사려성은 낮으면서 지배성과 사회성이 높고, 아동은 안정성과 우월성이 특히 낮음)의 경우에 어머니의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이 가장 높았다. 안정성과 자신감이 낮은 아동이 지배적이고 사회성이 높으면서 책임성과 사려성은 낮은 어머니를 거부적이고 방임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온정·수용적 행동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군집5(어머니와 아동 모두 사려성과 사회성이 낮음)의 아동은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행동을 가장 낮게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아동과 어머니 모두 모든 성격 특성들이 낮은 편이면서 특히 사려성과 사회성이 낮은 경우에 어머니는 온정적인 행동을 가장 적게 보이는 것으로 아동에게 지각되고 있었다.

군집1(어머니와 아동 모두 사려성만 다소 높은 편)의 경우에 아동은 어머니의 허용·방임이 적으며 거부·제재는 보통 정도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집2와 군집3 간에 특히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군집2와 군집 3의 성격조화유형을 다시 비교하여 보면, 군집2는 어머니와 아동이 모두 안정성과 자신감

이 높은 조화유형이며 군집3은 아동이 안정성과 자신감은 낮고 어머니는 책임성과 사려성은 낮으면서 지배성과 사회성이 높은 조화유형이다. 군집2와 군집3의 아동 성격의 차이는 안정성과 자신감에서 높고 낮은 것이었으며, 어머니 성격의 차이는 군집3의 경우 어머니가 책임성과 사려성은 낮으면서 지배성과 사회성이 높은 것이었다.

3. 모-자녀 성격조화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모-자녀간 성격조화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와 아동의 성격조화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군집2(어머니와 아동 모두 안정성과 우월성이 매우 높음)의 아동이 운동능력을 제외한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신체와 용모, 행동과 품행, 그리고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있었다.

그에 비해 군집3(어머니는 책임성과 사려성은 낮으면서 지배성과 사회성이 높고, 아동은 안정성과 우월성이 특히 낮음)의 아동은 모든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군집4(어머니는 사려성과 책임성이 낮고 아동은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은 편)의 아동은 운동능력을 다른 성격조화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수용도와 전반적 자아

<표 6> 모-자녀 성격조화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군집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M(SD)	F값	사후검증	M(SD)	F값	사후검증	M(SD)	F값	사후검증
1	2.68(.61)	28.8***	a b	2.79(.53)	25.8***	a a b a b a	2.57(.70)	7.4***	b a
2	3.01(.51)			3.03(.52)			2.66(.62)		
3	2.20(.51)			2.37(.59)			2.29(.67)		
4	2.75(.57)			2.93(.52)			2.74(.56)		
5	2.42(.57)			2.44(.55)			2.39(.61)		
6	2.62(.56)			2.82(.48)			2.68(.64)		
자아존중감 군집	신체, 용모			행동, 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		
	M(SD)	F값	사후검증	M(SD)	F값	사후검증	M(SD)	F값	사후검증
1	2.57(.65)	11.2***	a b	2.63(.44)	33.1***	b a c b b b	2.91(.55)	25.2***	b a c a b a
2	2.95(.69)			3.01(.45)			3.38(.49)		
3	2.31(.79)			2.24(.46)			2.63(.67)		
4	2.89(.68)			2.59(.47)			3.19(.53)		
5	2.63(.67)			2.59(.49)			2.91(.58)		
6	2.68(.72)			2.57(.44)			3.18(.54)		

***p< .001

a, b, c; Scheffe 사후검증 집단 차

<표 7> 모-자녀 성격조화유형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군집	자기조절 및 활용			정서인식			타인조절 및 표현			감정이입		
	M (SD)	F값	사후 검증	M (SD)	F값	사후 검증	M (SD)	F값	사후 검증	M (SD)	F값	사후 검증
1	2.22 (.30)		b	2.52 (.31)		b	2.49 (.32)		b	2.21 (.36)		
2	2.43 (.25)		a	2.66 (.25)		a	2.65 (.25)		a	2.32 (.40)		a
3	2.02 (.34)	27.3***	c	2.32 (.33)	17.6***	c	2.25 (.40)	29.7***	c	2.07 (.41)	11.2***	
4	2.21 (.31)		b	2.54 (.29)			2.47 (.30)		b	2.21 (.39)		
5	2.11 (.31)			2.41 (.36)			2.23 (.35)		c	1.99 (.40)		b
6	2.15 (.31)			2.45 (.31)			2.41 (.32)		b	2.09 (.39)		

***p<.001

a, b, c: Scheffe 사후검증 집단 차

가치감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행동과 품행은 중간 정도였다.

군집6(어머니는 지배성과 사회성이 높으며 아동은 사려성과 책임성이 낮은 편)의 아동도 사회적 수용도와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행동과 품행은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군집1(어머니와 아동 모두 사려성만 다소 높은 편)의 아동이 사회적 수용도는 높으나, 행동·품행과 전반적 자아 가치감은 중간 정도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군집5(어머니와 아동 모두 사려성과 사회성이 낮은 편)의 아동은 모든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성격조화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에서도 양육행동과 마찬가지로 군집2와 군집3의 조화유형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었다.

4. 모-자녀 성격조화유형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모-자녀간 성격조화유형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은 <표 7> 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와 자녀의 성격조화유형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었다. 군집2(어머니와 아동 모두 안정성과 우월성이 매우 높음)의 아동이 정서지능의 모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동 모두 안정성과 자신감이 높은 경우에 아동은 자기조절 및 활용, 정서인식, 타인조절 및 표현, 그리고 감정이입의 모든 영역이 높았다.

그에 비해 군집3(어머니는 책임성과 사려성은 낮으면서 지배성과 사회성이 높고, 아동은 안정성과 우월성이 특히 낮음)의 아동은 감정이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서지능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군집5(어머니와 아동 모두 사려성과 사회성이 낮은 편)의 아동도 낮은 정서지능 수준을 보였는데, 특히 타인조절 및 표현과 감정이입에서 낮았다. 어머니와 아동이 모두 사려성과 사회성이 낮은 성격조화유형의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조절하는 능력보다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고 감정이입하는 능력에서 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의 성격조화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지며, 각 조화유형의 특성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모-자녀의 성격조화유형에 따라 어머니 양육행동이 어떻게 다르며, 모-자녀의 성격조화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조화유형 파악을 위해 군집 분석과 판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섯 개의 군집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타나 여섯 개의 군집 수를 지닌 군집분석 결과를 채택하고 그들에 대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군집 1부터 군집 6까지에 대한 분류 확률을 보면, 군집 1은 전체 106사례 중 97개가 올바르게 소속되어 91.5%의 판별적중률을 보이고 있으며, 군집 2는 97.2%, 군집 3은 99.1%, 군집 4는 96%, 군집 5는 94.4% 그리고 군집 6은 93.8%의 적중률을 보여 전체 사례에 대해 95.4%의 판별 적중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집 분류가 비교적 올바르게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각 군집의 특성을 소개하면 먼저 군집 1의 경우, 어머니와 아동 모두 사려성만 다소 높은 편이었다. 군집2는 어머니와 아동 모두 안정성과 우월성이 매우 높았다. 군집3의 경우에 어머니

니는 책임성과 사려성은 낮으면서 지배성과 사회성은 높은 경향이 있고 아동은 안정성과 자신감이 특히 낮은 편이었다. 군집4의 조화유형은 어머니는 사려성과 책임성이 낮은 편이고 아동은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았다. 군집5는 어머니와 아동 모두 사려성과 사회성이 낮은 편이었다. 끝으로 군집6은 어머니는 지배성과 사회성이 높으며 아동은 사려성과 책임성이 낮은 편이었다.

둘째, 모-자녀 성격조화유형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아동 모두 안정성과 우월성이 높은 조화유형(군집2)의 어머니가 온정·수용이 높고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은 낮아 가장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책임성과 사려성은 낮으면서 지배성과 사회성이 높으며, 아동은 안정성과 우월성이 낮은 조화유형(군집3)의 경우에 어머니는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이 높아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와 아동 모두 사려성과 사회성이 낮은 조화유형(군집5)의 어머니가 가장 낮은 온정·수용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지배성과 사회성이 높은 군집 3의 경우에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이 높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영아에게 권력행사를 높은 정도로 사용하였으나 외향성이 낮은 어머니는 영아의 특성과 관계없이 권력행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Clark 등(200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지배성과 사회성,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는 아동을 대하는 행동이 거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현진과 박성연(199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외향적일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을 사용하였으며 전현진과 박성연(199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자신이 스스로의 양육행동을 평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지배성과 사회성이 높은 성격의 어머니는 자신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러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행동을 온정적이고 수용적으로 지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박영애·최영희·박인진, 2002), 전현진과 박성연(1999)의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어머니가 온정적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거부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아동의 안정성과 자신감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아동의 낮은 안정성과 사려성이 부모의 적극적 거부형 양육태도와 상관이 있었다는 강영일(1983)의 연구 그리고 아동의 낮은 안정성과 사회성이 부모의 부당한 양육과 상관이 있었다는 박은미(199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어머니와 아동의 성격조화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동 모두 안정성과 우월성이 높은 조화유형(군집2)의 경우에 아동은 운동능력을 제외

한 다른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책임성과 사려성이 낮고 지배성과 사회성이 높으며, 아동의 안정성과 자신감이 낮은 조화유형(군집3)의 아동은 모든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와 아동 모두 사려성과 사회성이 낮은 조화유형(군집5)의 아동은 모든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부모와 자녀의 성격조화유형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동이 모두 안정성과 자신감이 높은 유형(군집2)의 아동이 정서지능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정도를 보였으며, 어머니는 책임성과 사려성은 낮으면서 지배성과 사회성이 높고 아동은 안정성과 자신감이 낮은 유형(군집3)의 아동이 감정입을 제외한 모든 정서지능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정도를 보였다. 어머니와 아동 모두 사려성과 사회성이 낮은 성격조화유형(군집5)의 아동은 타인조절 및 표현과 감정이입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어머니와 아동 모두 안정성과 우월성이 높은 성격조화유형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이러한 성격조화유형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도 높았다. 가장 부정적인 성격조화유형은 어머니는 책임성과 사려성은 낮으면서 지배성과 사회성이 높고 아동은 안정성과 자신감이 낮은 유형이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거부와 방임이 높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도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조화유형은 어머니와 아동 모두 사려성과 책임성이 낮은 유형이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동의 성격이 조화되는 유형을 찾고, 조화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면서 어떠한 조화유형일 때 가장 바람직하며 어떤 유형일 때 가장 부정적인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전국적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지역별 아동 비율을 고려한 확률표집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일반화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아동과 어머니의 성격 검사 도구가 오래전에 개발된 것으로 남향성과 같이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정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래된 도구를 사용한 이유는 아동과 어머니의 성격조화를 분석하기 위해 아동과 어머니의 하위성격 요인이 최대한 동일해야 했으므로 같은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발견된 조화유형은 6가지였으며, 각 조화유형이 단순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났으므로 각 조화유형의 특징을 명료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각 유형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유형의 이해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것이므로 각 유형의 특성을 단순화시켜 진술하고자 하였으며,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각 유형이 지닌 특성을 일부 간과한 것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동의 성격이 각각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작용하는 영향을 넘어서 어머니와 아동의 성격이 조화되는 유형을 발견하여 그 유형으로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설명하려 시도했던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특히 어머니가 지배성과 사회성이 높은 경우 스스로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동은 어머니의 온정을 지각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부모에게 효과적인 양육행동을 교육하고자 하는 부모교육 실사에서 어머니의 성격 특성을 인식하는 과정과 자신의 양육행동을 통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을 설명할 때 어머니의 특성과 아동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을 취하고자 시도한 연구로서 추후에 양육행동과 아동 발달의 이해를 위한 연구들에게 지침이 되길 기대한다.

- 접수일 : 2004년 05월 14일
 □ 심사일 : 2004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7월 19일

【참 고 문 헌】

- 강영일(198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인성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윤정(1997). 정서지능의 발달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글이랑.
- 문용린·곽윤정·이강주(1999). 정서지능 연구의 성과와 전망. 서울대 교육연구소.
- 박성연·전춘애·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애·최영희·박인전(2002).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3(2), 71-88.
- 박은미(199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 특성과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로·변창진·진위교(1969). 성격진단검사(초등학교 고학년용). 중앙적성연구소.
- _____ (1969). 성격진단검사(성인용). 중앙적성연구소.
- 전현진·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 최영희(1993). 기질과 환경간의 “조화로운 합치” 모델 검증 연구 (I): 조화로운 합치정도와 양육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17-226.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port, G. W.(1973).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Vondra, J.(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T. Luster & L. Okagaki(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227-250.
- Bettes, B. A.(1988).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ese : Temporal and intonational features. *Child Development*, 59, 1089-1096.
- Burger, J. M.(2000). *Personality(5th ed.)*. Wadsworth.
- Carroll, J. B.(1993). *Human cognitive abilities: A survey of factor-analytic stud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rk, L. A., Kochanska, G. & Ready, R.(2000). Mothers' persona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274-285.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H. Freeman.
- Dunn, J. & Brown, J.(1994). Affective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19, 694-702.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_____ (1985). Competence as dimensions of self-evaluation: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of self-worth. In R. L. Leahy(Ed.). *The development of self*, 55-122, New York: Academic Press.
- Mayer, J. D., Caruso, D. R. & Salovey, P.(2000). Selecting a measure of Emotional Intelligence: A case for ability scale. In R. Bar-On(Ed.).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in the Workplace*, 320-342, Jossey-Bass. A Wiley Company.
- Lerner, J. V., Lerner, R. M. & Zabski, S.(1985). Temperament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ctual and rated academic performance: A test of a 'goodness-of-fit' model.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 125-136.
- Robins, R. W., Caspi, A. & Moffitt, T. E.(2000). Two personalities, one relationship: Both partners' personality traits shape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Journal of Per-*

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251-259.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alovey, P. & Sluyter, D. J.(Eds.)(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Basic Books.
- Thomas, A. & Chess, S.(1983). Temperament and parent-child interaction. In W. Damon(Ed.).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Y: W.W.Norton & Company.
- Thomas, A., Chess, S. & Birch, H. G.(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Wylie, R. C.(1979). *The self-concept(Vol. 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